

공감하기

세대별 SNS 이용 방식



모든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SNS,
하지만 세대별로 그 이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X, Y, Z세대가 SNS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자.

X세대: 1960년대 후반~1970년대생

Y세대: 1980년대~1990년대 중반생

Z세대: 1990년대 후반~2000년대생



※ 본 내용은 대학내일20대연구소
에서 만 15~49세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커뮤니케이션
과 소통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상 전할 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X세대

61.0%

39.0%

전화통화 61.0% / 문자·메시지 39.0%

Y세대

36.0%

64.0%

전화통화 36.0% / 문자·메시지 64.0%

Z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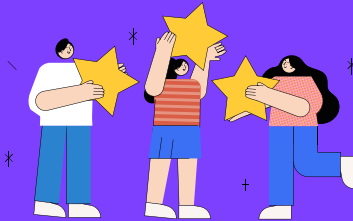
33.0%

67.0%

전화통화 33.0% / 문자·메시지 67.0%

Y·Z세대는 텍스트 위주의 매체인 문자·메시지로 소통하길 선호하지만, X세대는 음성 위주의 매체인 전화통화로 소통하길 선호한다고 답했다.

인스타 스토리



X세대

61.0%

친한 사람에게만 공유하고 싶어서 61.0%

Y세대

42.7%

친한 사람에게만 공유하고 싶어서 42.7%

Z세대

40.0%

피드에 남길 만큼 중요한 순간이 아니어서 40.0%

Z세대, Y세대, X세대 순으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자주 이용한다' 고 응답했다.

Z세대는 '피드에 남길 만큼 중요한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X·Y세대는 '친한 사람에게만 공유하고 싶어서' 이용한다고 답했다.

SNS 인식



밀레니얼
세대

14.3%

커뮤니티 회원을 친구로 인식하고 있다. 14.3%

Z세대

22.3%

커뮤니티 회원을 친구로 인식하고 있다. 22.3%

Z세대는 무려 22.3%가 SNS 속 관계를 '친구로 인식하고 있다' 고 응답했다.

다른 세대에 비하여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에 적극적이며,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까지 사용한다.

공감하기



시대가 흐르면서 다양한 세대가 생겨나
그들 사이의 SNS 이용 행태에 차이가 생겼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이용 방식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SNS 이용자들이 나와 다른 세대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더욱 밝은 SNS 문화가 조성될 것이다.